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Fitness and problems of ready-to-wear garment in collegians

김양원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Kim, Yang-Weon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Taej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tness and its problems related in clothing fitness and to get basic data to develop fit ready-to-wear garment, total 352 subjects were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998.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Both men and women felt fitter in upper clothes than lower clothes. As compared with women, men became more aware of proper fit except coat.
2. Men had lest fitting problems in blouse and shirts while women in coat.

Also, the clothes stated which had most fitting problems were trousers by men and women.

3. A variety of fitting problems in ready-to wear garments were identified including sleeve length, skirt length, and pants length.
4. The most frequent alterations were shortening or lengthen of skirt and pants.

Key words : fitness, ready-to-wear, clothing alteration, fitting problemrateristics

I. 서론

현대에는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시대이고, 이에 따라 의복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활 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의생활의 소비패턴

도 그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은 스타일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기성복을 주로 구입하는 경향으로 변화였다. 최혜선과 이경미(1995)에 의하면 의복구입시 기성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94.1%였다고 보고 하였다. 기성복은 다수가 착용이 가능하도록 대상 집단의 표준화된 치수와 각 개인의 체형 차이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제작해야하나 기성복의 치수는 각 의류업체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설정되어 소비자가 의복구입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효율적인 의복의 치수는 개인이나 기성복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가 힘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체 측정자료를 관리하고, 의류

Corresponding author : Kim, Yang-Weon
Tel. 042)280-2463 Fax. 042)283-7172
E-mail : Kyang@dragon.taejon.ac.kr

치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의복의 선택에 있어 보다 합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성복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표준치수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복을 대량생산하므로, 이 사이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기성복을 사 입었을 때 의복이 잘 맞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같은 크기를 가진 집단이라도 형태는 다양하고, 의복의 커버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복의 적합성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업체 독자적으로 만든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제조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사이즈규격과 치수분류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기존의 의류치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기성복의 적합성 및 치수규격에 관한 연구(이경미, 1991; 박상희와 조진숙, 1994), 새로운 표준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공민희와 송태욱, 1982; 손희순, 1989; 이해영과 조진숙, 199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증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이즈에 관한 맞춤새의 인지도와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기성복의 신체적 적합성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치수체계정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의 사이즈체계는 기성복을 선택하여 입을 비율이 90%가 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옷을 입었을 때 의복의 적합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처음으로 KS 의류치수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이 규격은 키는 150~170cm범위에 5cm, 가슴둘레는 76~97cm범위에 3cm, 허리둘레는 59~80cm 범위에 3cm 간격으로 치수를 설정하였다(공업진흥청, 1982). 그러나 이 치수는 신장의 증가에 따라 가슴둘레나 허리둘레

등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고, 특히 중년여성에게 있어 의복의 치수를 정하는데 중요한 영덩이둘레가 빠져 있었다. 또 인체는 입체로서 체형에 많은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형에 대한 분류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업체의 실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 후 1990년에 개정된 KS 의류치수는 의복의 종류별 기본 부위에 대한 치수간격만을 제시하고 있고, 성인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여 드롭(drop: 영덩이둘레-가슴둘레)에 따라 기본 부위의 신체치수를 조합하여 제시하였다(공업진흥청, 1990). 한편 이해영과 조진숙(1995)에 따르면, 이러한 KS 의류치수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상의 체형 및 치수범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서 업체측에서는 KS규격과 판매경험에 의존하여 업체마다 각기 다른 치수체계를 가지고 의복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류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사이즈체계를 사용하여 의복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를 위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최유경(1988)은 만 1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 60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의 성장은 연령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김순자(1996)는 중년 여성의 측면체형을 바른체형, 숙인체형, 젖힌체형, 흰체형으로 나뉘고, 사이즈 스펙에 대한 연구(최유경과 이순원, 1999; 김구자, 1999)결과, 정면 체형을 4개로 나누고 각 체형별로 상·하의의 기본부위의 치수간격을 결정하고, 그 인원수를 파악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나타내는 구간을 의류의 치수규격으로 제안하였다. 또 남성복에 대해서는 10000명의 도수 추정에서 2%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는 것을 사이즈 스펙으로 하였다. 사이즈체계에 관한 연구들(이해영과 조진숙, 1995; 임영자와 임형숙, 1999; 박상희와 조진숙, 1994; 최혜선과 이경미, 1995)에서는 정확한 인체측치를 바탕으로 체형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길이 항목과 둘레항목간의 치수조합을 다양하게 하며, 소비자의 실제체형에 가까운 치수분류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중년여성의 기성복은 의복의 Drop치로 분류하면 신체를 보완하여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에서 여전히 업체 나름대로의 치수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는 치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실정

이다. 따라서 신체에 잘 맞는 의복인 신체와 의복간의 적당한 여유분이 있어서 편안하게 느껴지고 활동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의복을 만들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안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치수의 변화정도가 많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8년 11월부터 한달간 대전시에 거주하는 남학생 146명(58.5%), 여학생 206명(41.5%) 등 총 3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맞춤새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의복의 적합성 7문항, 의복이 맞지 않았을 때의 처리방법 8문항, 의복구입 장소 1문항, 의복사이즈에 관한 사항 15문항, 의복수선에 관한 사항 8문항, 연구대상자의 신체사이즈에 관한 사항 4문항, 사회인구학적 사항 6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김선화, 1996; 최혜선과 이경미, 1995; Hogge & Baer, 1986)를 토대로 하여 추출한 40문항과 연구자가 추가로 조사한 12문항들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자신의 신체치수에 대한 인식정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자신의 신체치수에 관한 인지정도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85% 이상이 자신의 체중과 신장을 알고 있었으며,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엉덩이둘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이 기록한 그들의 신체치수와 설문조사자들이 직접계측한 신체치수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남자의 신장에서만 유의차가 인정되었고($p < .05$), 다른 부위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자신의 치수에 대한 인지정도는 최혜선과 이경미의 연구(1995)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엉덩이둘레에 대한 인지도는 본 연구가 낮았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남자가 포함되어 있고, 남자는 하의 구입시 엉덩이둘레 보다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의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엉덩이둘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구입 장소와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 인지도

1) 의복구입 장소

남자는 할인점에서 46.6%가 옷을 사고, 다음은

<표 1> 자신의 치수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신장	체중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남 자	87.9	85.6	78.7	52.6	35.2
여 자	92.2	90.3	83.2	64.5	56.2

<표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단위 : cm

	남 자			여 자		
	인식치 mean S.D	실측치 mean S.D	t-value	인식치 mean S.D	실측치 mean S.D	t-value
신장	175.2 ± 4.6	171.9 ± 20.0	2.02*	163.9 ± 4.0	162.6 ± 4.2	1.24
가슴둘레	98.1 ± 7.5	97.6 ± 7.3	1.23	84.5 ± 5.4	84.2 ± 4.8	1.01
허리둘레	77.4 ± 4.9	77.8 ± 4.8	1.02	67.2 ± 4.4	67.4 ± 4.6	1.03
엉덩이둘레	96.1 ± 5.9	97.0 ± 5.7	1.22	90.6 ± 4.8	90.4 ± 7.0	1.04

* $p < .05$, S. D : 표준편차

각각 20.3%가 백화점과 시장에서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자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할인점에서 29.1%가 옷을 샀으며, 시장에서 옷을 사는 비율이 4.9%로 가장 낮았다. 의복구입장소로 미루어 볼 때 여자는 의복이 다양하고 한 곳에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비교쇼핑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선호하였고, 이에 비해 남자는 경제적인 실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 인지도

의복의 맞춤새란 활동하기에 편하면서 의복이 신체에 잘 맞는 정도를 말한다. 남녀별 각종 의복의 맞춤새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의복의 맞춤새 정도는 코트를 제외한 재킷, 블라우스 및 남방류, 티셔츠류, 바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자의복보다 여자의복의 디자인이 다양하여 의복이 맞고 안 맞음이 옷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복착용시 적합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의복은 남자의 경우는 블라우스 및 남방류와 T셔츠류였고, 여자의 경우는 티셔츠류를 착용했을 때 적합성이 가장 높다고 답하였다. 이는 남자용 블라우스나 남방류는 여성용 의복과 같이 몸에 맞는 스타일보다는 여유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T셔츠류는 여유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축성이 있는 직물로 만들기 때문에 적합성이 높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반면, 바지를 착용했을 때가 다른 옷을 착용했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잘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약 60%정도가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착용시와 비교할 때 바지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남녀 모두 다른 의복보다는 바지에 대한 맞춤새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하의의 기본 치수로는 남녀 모두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사용하고 있고(공업진흥청, 1992), 밑위길이나 하지장과 같은 치수를 하의 치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유행에 따라 꼭 끼는 형태의 의복인 경우는 헐렁한 형태의 의복이 유행할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제고해야 할 것이

다. 또, 20대의 경우 신장, 다리의 길이나 둘레, 엉덩이길이 등이 다양하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

지며, 바지의 사이즈 규격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19~54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선희와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도 비슷하였는데, 대학생의 연령층은 하의의 전 부위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는 남·녀 모두 상의가 하의보다 더 잘 맞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맞춤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의복 착용시 맞춤새 불만족 이유와 수선문제

각 의복별 맞춤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위는 재킷의 경우 여자는 어깨넓이와 가슴둘레가 잘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남자는 소매길이가 가장 문제시되었다. 이는 이선희와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소매길이가 신장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같은 신장에서 치수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여성의 경우 가슴둘레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98년 당시에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여 재킷에서도 꼭 맞는 의복을 많이 입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블라우스나 남방류를 입었을 때 안 맞는 부위는 남자는 소매길이가, 여자는 가슴둘레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희와 서미아의 연구(1997)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 연령층인 19~27세의 집단에서 또, 코트를 착용했을 때는 남·녀 모두 소매길이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바지의 경우는 남자는 바지길이를, 여자는 엉덩이둘레 및 바지길이가 안 맞는다고 하였고, 스커트 착용시 여자는 엉덩이 둘레를, 원피스 착용시는 가슴둘레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남자의 경우 상의는 소매길이가 안 맞는 비율이 높았고, 하의는 바지길이가 가장 맞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상의 착용시 가슴둘레와 어깨넓이가, 하의 착용시는 엉덩이둘레

〈표 3〉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 인지도

단위 : n(%)

의복의 종류	성별	잘 맞는다	잘 맞는 편이다.	보통이다	안 맞는 편이다	안 맞는다
자켓	남	70(47.9)	22(15.1)	40(27.4)	14(9.6)	0(0)
	여	90(43.7)	38(18.5)	42(20.4)	32(15.5)	4(1.9)
블라우스 및 남방류	남	88(60.2)	24(16.4)	28(19.2)	6(4.1)	0(0)
	여	86(41.8)	38(18.5)	56(27.2)	24(11.7)	2(1.0)
티셔츠류	남	88(60.2)	30(20.6)	20(13.7)	8(5.5)	0(0)
	여	114(55.3)	27(13.6)	42(20.7)	22(10.7)	0(0)
바지	남	40(27.4)	36(24.7)	32(21.9)	34(23.3)	4(2.7)
	여	46(22.3)	38(18.5)	60(29.1)	53(25.8)	9(4.3)
스커트	여	58(28.2)	50(24.2)	60(29.1)	32(15.5)	6(2.9)
원피스	여	72(35.0)	32(15.5)	84(40.8)	16(7.8)	2(1.0)
코트	남	74(50.7)	20(13.7)	40(27.4)	12(8.2)	0(0)
	여	110(53.4)	36(17.5)	35(17.5)	26(12.6)	0(0)

가 안 맞는 비율이 높아 치수체계 설정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각종 의복별 부적합 부위와 수선문제

1) 각종 의복 착용시의 부적합부위

각종 의복별 부적합 부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켓을 착용했을 때 남자는 소매길이가 가장 문제였고, 여자는 어깨넓이, 가슴둘레, 소매길이가 안 맞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블라우스나

남방류는 남녀의 차가 많아 남자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78.1%였던 반면, 여자는 48.6%로 낮았다. 특히 여자는 가슴둘레가 안 맞다고 한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자의 블라우스나 남방은 디자인이 꼭 끼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티셔츠류나 코트류는 남녀 모두 소매길이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로써 상의류는 소매길이와 어깨넓이가 가장 문제가 많은 부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옷을 만들 때 가슴둘레나 전체 신장의 비례로 소매길이를

〈표 4〉 각종 의복별 부적합 부위

단위 : n(%)

의복종류	문제없음	가슴둘레	허리둘레	재킷길이	소매길이	어깨넓이	배부위
자켓	86(58.9)	4(2.7)	6(4.1)	2(1.4)	28(19.2)	14(9.6)	6(4.1)
	100(48.5)	26(12.6)	12(5.8)	2(1.0)	26(12.6)	36(17.5)	4(1.9)
블라우스·남방류	104(78.1)	4(2.7)	2(1.4)	0(0)	18(12.3)	20(4.1)	2(1.4)
	101(48.6)	40(19.4)	16(7.8)	12(5.8)	20(9.7)	5(2.9)	0(0)
티셔츠나 스웨터류	84(64.4)	12(8.2)	4(2.7)	10(6.9)	16(11.0)	5(2.8)	0(0)
	121(58.3)	18(8.7)	6(2.9)	10(4.9)	20(9.7)	31(15.5)	0(0)
코트류	83(63.8)	4(2.7)	6(4.1)	20(9.7)	31(15.5)	0(0)	0(0)
	121(58.3)	10(4.9)	10(4.9)	8(5.3)	19(12.9)	8(11.0)	0(0)
바지	문제없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바지길이	바지폭	
	42(28.8)	22(15.1)	20(13.7)	8(5.5)	52(35.6)	2(1.4)	
	72(35.0)	27(12.7)	47(23.2)	13(5.9)	45(22.3)	2(1.0)	
스커트	문제없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스커트폭	기타	
	90(43.7)	40(19.4)	27(26.2)	16(7.7)	6(2.9)	0(0)	
원피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어깨넓이	원피스길이	
	28(13.7)	16(7.8)	4(1.9)	4(1.9)	14(6.8)	20(9.7)	

〈표 5〉 각종 의복의 수선율

단위 : n(%)

의복종류	남	여
자켓	16(11.0)	36(17.5)
블라우스나 남방류	8(5.5)	21(10.6)
티셔츠나 스웨터류	6(4.1)	2(1.0)
바지	44(30.1)	72(35.0)
스커트		72(35.0)
원피스		42(20.4)
코트	20(13.7)	48(23.3)

〈표 6〉 의복종류별 수선부위

단위 : n

자켓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자켓길이	소매길이	어깨넓이	기타
		남	1	0	3	10	2
여		10	0	5	15	6	0
코트		팔길이	코트길이	코트폭	어깨넓이		
		남	14	6	0	0	
여		15	27	4	2		
바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바지폭		
		남	8	3	29	4	
여		12	8	49	3		
스커트	여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스커트폭		
		18	6	44	4		
원피스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원피스길이	소매길이	어깨넓이	기타	
		8	5	12	6	3	7

정하지 말고, 소매길이를 계측하여 소매길이를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바지는 모든 의복에서 안 맞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바지길이가 가장 맞지 않았고, 여자는 엉덩이둘레와 바지길이가 가장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안 맞다고 느끼는 부위는 엉덩이둘레가 2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허리둘레가 많았다. 원피스 착용시 부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가슴둘레가 가장 많았다.

2) 의복의 구입 치수 및 부적합 발생시의 대책

기성복 구입시 수선을 의뢰한 경험은 남자는 52.1%였고, 여자는 70.9%였고, 평상시 의복이 맞지 않았을 때 늘 수선하여 입는 비율은 남자 20.6%, 여자가 26.2%였다. 이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옷을 수선하여 입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수선 의뢰는 남자의 경우는 48.0%는 세탁

소를 28.8%는 구입한 매장에서 수선하였고, 여자는 구입한 매장 52.3%, 세탁소에 의뢰하는 비율이 39.8%였다. 따라서 수선이 필요할 경우 남녀 모두 구입한 매장이나 세탁소에 주로 의뢰하였다. <표 5>은 각종 의복별 수선율이다. 자켓 및 블라우스류는 주로 폭 끼거나 너무 큰 것이 문제였으나, 남녀 모두 수선 부위는 주로 소매길이라고 답하였고, 티셔츠나 스웨터류는 너무 큰 것이 문제였으며, 수선하여 입는 비율이 6.8%정도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의 경우는 남자는 길이가 안 맞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는 어깨가 안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스커트 착용시는 엉덩이 부위가 잘 안 맞는다고 하였으며, 수선하여 입는 비율이 약 65%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허리둘레를 가장 많이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 착용시는 여자는 넓적다리가 폭 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바지길이가 안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안 맞을 경우 남녀 모두 남에게 주거나 안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선 할 경우는 남녀 모두 바지길이 만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허리에 비하여 가슴부위가 너무 크거나 꼭 낀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로부터 각 의복별 맞춤새가 안 맞는 이유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의복의 수선은 길이나 허리둘레와 같이 의복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는 부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의 인지도와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기성복의 신체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치수체계 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는 남 녀 모두 상의가 하의보다 더 잘 맞았으며, 코트류를 제외한 재킷, 블라우스와 남방류, T셔츠류, 바지 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맞춤새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2. 각종 의복중 맞춤새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적은 의복은 남자는 블라우스나 남방류였고, 여자는 코트류였으며, 문제점이 가장 많았던 의복은 남·녀 모두 바지였다.
3. 부적합 부위는 상의의 경우는 소매길이가 어깨 넓이가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하의의 경우는 길이와 엉덩이둘레가 문제점이 많았다.
4. 각종 의복의 수선율은 남자는 바지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바지와 스커트가 가장 높았다. 수선부위는 수선하기가 용이한 길이항목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로부터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은 맞춤새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체계측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상의의 경우는 소매 길이와 어깨넓이에 대한 치수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하의의 경우는 바지길이가 안 맞는 비율이 높으므로 바지 제작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여성용 스커트는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례치를 세분화하여 보다 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의복을 대량생산할 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이즈별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생산한다면 사이즈에 의한 재고량이 줄어들어 원가상승의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사이즈를 세분화해서 생산했을 경우 원가상승과 판매율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데이터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유의하여야 한다.

주제어 : 맞춤새, 신체치수, 부적합부위, 수선율

참 고 문 헌

- 공민희, 송태옥(1982), 성인 여자 기성복의 치수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1호. pp. 23~45.
- 공업진흥청(1982), 의류치수규격.
- 공업진흥청(1990),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규격의 단순화 방안연구.
- 김구자(1999), 신사복 상의 설계를 위한 체형의 호칭분류와 사이즈 스펙,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pp. 1240~1247.
- 김선화(1996), 미국내 아시아 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권 1호. pp. 1~10.
- 박상희, 조진숙(1994), 중년기 여성 기성복의 신체적합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1권 11호. pp. 853~864.
-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희, 서미아(1997), 남성 기성복의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

- 연구소 제 15권, pp. 154~175.
- 이혜영, 조진숙(1995), 기성복 제작을 위한 표준치수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 32권 1호. pp. 23~37.
- 최유경, 이순원(1999), 성인여성의 정면 체형별 사이즈 스펙의 제안, 한국의류학회지 23권 4호. pp. 575~583.
- 최유경(1988), 유아아복을 위한 신체계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 이경미(1995), 중년여성의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1호. pp. 187~207.
- Hogge, V., Baer, M.(1986), Elderly women's clothing : A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 to 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pp. 34~41.